

노부모 부양 기혼여성의 노인복지시설입주 예측 요인에 관한 연구

강현정* · 김윤정

농촌진흥청 농촌자원개발연구소* · 한서대학교 노인복지학과

A Study on Determining Factors for the Aged Parents Supporting Married Women's Intention of Moving into a Welfare Facility

Kang, Hyun Jung* · Kim, Yun Jeong

Rural Resources Development Institute, RDA, Suwon, Korea*

Dept. of Elderly Welfare Hanseo University, Seosan, Korea

ABSTRACT

For 387 married women in their 20s to 50s, we inquired about the differences in whether they intended on moving into a welfare facility, depending on their views on supporting the elderly and the burden of supporting elderly parents, and tried to find out factors that would affect their decision to move into a welfare facility. With those objectives in mind, we conducted a survey targeting married women in their 20s to 50s who live in Seoul, Daejeon or a city or county in Choongnam-do, and carried out frequency analysis, intersection analysis, one-way ANOVA and judge analysis. Our findings from those analyse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when considering married women's characteristics and examining their intention of moving into a welfare facility for the elderly, there was a meaningful difference in their intention depending on age, academic background, occupation, and area of residence. Second, our analysis of the differences in their intention of moving in, based on married women's view on supporting the elderly and the burden of supporting elderly parents, indicates that due to these responsibilities, the greatest number of married women expressed their intention of moving in if a convenient facility for the elderly and service were provided. However, the analysis for the intention of moving in depending on savings for old age, did not exhibit any meaningful difference. Third, from the examination of determining factors for married women's intention of moving into a welfare facility for the elderly, based on age, academic background, occupation, residential area, responsibility for supporting an elderly family member and savings for old age, it was found that the burden of support was the only meaningful effective factor.

Key words: welfare facility, the aged, caregiving stress

접수일: 2006년 10월 28일 채택일: 2006년 11월 26일

Corresponding Author: Kang, Hyun Jung Tel: 82-31-299-0496 Fax: 82-31-299-0443

E-mail: hj-cs@hanmail.net

I. 서론

2005년 생산가능인구 약 8명당 노인 1명, 2020년에는 4.6명당 노인 1명, 2050년에는 1.4명당 노인 1명을 부양하게 됨으로써(통계청 2005) 부양부담이 증가하게 되었다. 또한 핵가족화와 여성의 사회진출 및 부모에 대한 부양의식이 변화하고 있어, 노인부양의 1차적 책임을 지고 있는 가족의 부양 부담을 증가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노인인구의 증가나 노인부양의식의 변화는 부양에 있어 사회의 분담을 요구하며(김혜연·김성희 1999), 노인부양에 대한 사회적 부담의 증가를 초래한다. 따라서 이제까지 가족 내 부양으로 해결하던 방식은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부양의 의무와 책임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여성 부양자는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의 사용에 우선순위를 정해야 하고, 노부모와 자신의 가족 사이에 적절한 재정적 분배 등을 결정해야 하는 등 가중된 부양부담을 가진다(Mui 1994). 이러한 부양부담은 노인들의 노인복지시설 입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이미에 1998; 차홍봉 1998; Stepens & Christianson 1986; Smallgan 1985; Deimling & Poulshock 1985; Colerick & George 1986; Dwyer & Miller 1990; Morycz 1985; McFall & Miller 1992).

노부모에 대한 부담이 시설입주와 관련되는 것에서 좀 더 확장하여, 노인의 입장 변화 역시 시설 입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요즈음의 노인들은 자신의 노후를 자녀에게 맡기는 소극적 자세에서 스스로 책임지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실버타운이라 통칭되는 유료노인 시설의 부양형태를 받아들이는 적극적인 태도로 변화하고 있다(설말순 1999; 김순미 등 2004). 이러한 현상은 젊은 세대로 내려올수록 두드러진다. 젊은 세대들의 경우 수명이 연장 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길어진 노후를 누구와,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어떻게 보낼 것인가와 관련하여 노후를 계획하고 설계하고 있으며(김혜연·김성희 1999), 이런 노후 계획 속에는 시설입주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이러한 경

향에 따라 시설입주와 관련된 연구가 다수 발표되었다. 선행연구들(오찬옥·이연숙 1994; 신하연 1997; 박명옥 1998; 신영숙 1998; 오귀옥 1999; 박종천 1999; 박태숙 2000; 석희옥 2001; 김옥현 2001; 박영옥 2001; 조희자 2002; 이민경 2003; 김순미 등 2004; 권오정·김대년 2004; 신영숙 2004; 이민경 등 2004; 이종강 2004)은 직장인들과 중년층을 대상으로 한 노인복지시설 선호도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룬다.

그럼에도 실제적으로 노인부양에 있어 주된 역할을 하는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한 노인복지시설입주 영향 변인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즉, 노부모에 대한 부양부담이 노부모의 시설입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부양부담은 자신의 시설입주에도 영향을 미칠 것인데 이에 대한 고려는 아직까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젊은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노후의 독립적인 부양관이나 노후를 위한 저축 등 노후생활에 대한 계획 역시 성인들의 시설입주 의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본 연구에서는 노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기혼여성들의 시설입주에 관심을 두었다.

본 연구에서는 노부모부양의 주부양자인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기혼여성들의 노후 생활계획, 부양부담에 따른 노후에 노인복지시설에 입주할 의사를 파악해보고, 노후에 노인복지시설입주의사를 예측할 수 있는 요인을 규명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첫째, 기혼여성의 특성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입주의사의 차이에 대해 알아본다. 둘째, 기혼여성의 노후생활계획 및 부양부담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입주의사에 대해 알아본다. 셋째, 기혼여성의 노인복지시설입주의사 예측 요인을 규명한다.

II. 이론적 배경

1. 노후 생활계획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입주의사

기혼여성의 노후 생활계획을 알아보기 위해 부양책임관, 노후 자녀동거관, 노후 대비 저축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기혼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어서 전반적으로 중·장년층에 대한 연구를 기반으로 하여 기혼여성의 노후 생활계획을 알아보고 이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입주의사에 관해 알아보려고 한다.

1) 부양책임관

노후부양책임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은 노인들이 현재 누구와 함께 살고 있으며, 어느 자녀가 보다 더 부양책임을 갖고 있는가와 같은 전통적인 자녀부양유형에 초점을 두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이가옥 1990). 배계희(1988)의 연구에서는 노인의 부양책임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아들, 딸 모두’가 40.8%, ‘부모자신’이 30.1%의 순으로 나타난 데 비해, 이가옥(1990)의 연구는 부모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는 응답이 36.7%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유사한 결과로 서전과 박혜인(1992)의 연구에서는 노인의 부양책임에 관해서는 부모 자신이 36.7%로 가장 높았고, 자녀 모두, 아들형제모두, 장남에게만 순으로 낮아졌다. 부모자신이 책임져야 한다는 응답이 높은 것으로 미루어 보아 점차 자기부양의 방향으로 전환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노후 동거부양관

노후에 자녀와의 동거여부에 관해서 서전과 박혜인(1992)의 연구에서 중·장년층은 ‘가까운 거리에서 자녀와 살기를 원한다’가 가장 많이 나타났고, ‘동거를 원하지 않는다, 마음에 맞는 자녀와 살기를 원한다’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에서는 남자가 자녀와 동거하기를 원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실시한 1998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에 의하면, 65세 이상의 경우는 32.3%가 동거부양을, 20.2%는 자녀로부터 부양을 기대하고 있지만 별거하기를 원하고 있으며, 자녀로부터의 부양을 기대하지 않는 노인이 43.2%이다. 반면 25-34세 연령군의 경우는 절대다수인 83.1%가 자녀로부터의 부양을 전혀 기대하지 않고 있다(정경희 2002). 즉 현 노인세대의 절반 정도가 이미 자녀세대로부터의 부양을 기대하고 있지 않으며, 그러한 경향은 연령이 낮을수록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의 기혼여성은 독립적인 노후부양관이 우세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실증연구 결과에서도 잘 나타나는데, 노후 자녀동거와 관련된 연구들에 의하면 우리나라 기혼여성들은 노후에 자녀와 동거하기 보다는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거주 중년의 중산층 주부 대상으로 연구한 신영숙(1997)의 연구결과를 보면, 노후에 자녀와의 동거를 원하는 사람은 11.5%이고 대부분이 자녀와 별거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후 대책으로서 자녀로부터의 도움을 원하는 비율은 낮아서 중년층들은 자녀로부터의 도움을 거의 기대하지 않고 있음이 드러났다. 유사한 결과로 이연숙(1999)은 중년층을 대상으로 노후에 선호하는 주거형태를 조사한 결과 노후에 건강상태가 악화되거나 부부 중 혼자 남게 될 경우 아들과 같은 집 또는 이웃에 살겠다고 응답하여 건강악화나 배우자의 사망과 같은 극단적인 상황이전까지는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김두섭(2000)의 연구는 자녀와의 동거희망에서 전체 중년층 가운데 단지 17.9%만이 노후에 자녀와 함께 살고 싶다고 희망을 피력하였다. 그리고 11.3%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건강이 나쁠 때만 동거를 희망했으며, 3.8%는 자녀의 생활이 어려울 때 도움을 주기 위해 동거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나머지 67%는 가능한 자녀와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길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차이에 있어서도 50대 중년층 가운데 동거를 희망하는 비율이 21.7%로, 40대의 12.3%보다 동거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영옥(2001)의 연구결과에서 노후에 자녀와의 동거 여부에 관한 질문에 자녀가 원하면 동거하겠다는 경우가 36.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이 동거하지 않겠다고 32.6%이고 건강할 때는 독립, 노환에는 동거하겠다는 경우가 20.3%로 나타났다. 그러나 처음에 동거하다가 나중에 유료노인시설에 입주하겠다는 경우는 3.8%로 낮게 나타났으며, 자녀가 원치 않으면 동거하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가 2.3%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자녀와 동거하지 않겠다고 하는 응답이 높게 나타난 것은 현대 사회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요인들로 인해 노인세대와 자녀세대간의 별거 지향성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처럼 선행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노후에 자녀와 동거하지 않겠다는 응답자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현재 중년들의 노후 생활계획은 독립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3) 노후 대비저축

연령의 증가에 따른 경제생활을 보면 중년기에는 수입이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최대의 수입을 올리게 되지만, 그 이상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수입이 저하되다가 수입이 아주 없는 상태로 된다. 따라서 소득이 없는 노인들은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가정내에서도 의존적인 존재로 전락하게 된다. 그러므로 노후 생활에 있어서 경제적인 문제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겠다(임월 1997). 이러한 이유로 노후준비도와 관련된 연구를 보면 현재 중년들은 다른 영역에 비해 경제적 준비를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경제적 준비도가 가장 높은 것은 국민연금이나 보험, 저축 등 경제와 관련된 보완책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김윤정·최윤희 2004).

신영숙(1997)의 수도권 거주 중년의 중산층 주부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현재 노후의 경제대책을 세우고 있는 대상은 전체의 82.4%로서 대부분이 노후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가장 일반적으로 행하고 있는 것이 개인저축이며, 연금, 보험금 부동산 임대수입의 순으로 나타났다. 오귀옥(1999)은 노후생활 준비 실태, 경제적 대비 및 실버타운에 대한 요구도를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는데, 중·장년층의 신체적, 정서적, 경제적 측면에서의 준비 실태를 살펴보면 경제적 준비를 가장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래의 노후 생활을 준비하기 위해 평균 20만원 이상을 저축하고 있는 조사자가 33.0%로 나타났다. 김두섭(2000)의 연구에서 중년층의 77.7%가 현재 노후 경제생활에 대해 준비하고 있으며, 12.8%는 준비중이라고 응답하였다. 대부분의 중년층이 준비를 하고 있거나 준비를 계획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50대의 74.6%에 비해 40대는 82.3%가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연령이 낮을수록 노후 생활을 자녀에게 의존하기 보다는 본인 스스로 책임지려는 경향이 강해지는 것을 알 수 있고, 중년층들은 일정 부분 노후를 위해 저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부양책임관, 노후자녀동거관, 노후대비저축을 통해 기혼여성의 노후 생활계획을 알아보고 노후 생활계획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입주의사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경제적 노후계획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 이유는 유료노인복지시설 입주를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이에 상응하는 경제력이 요구되므로 유료노인주거시설에 대한 선호와 이용여부를 알기 위해서 노인의 경제력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오병태 1994)하기 때문이다. 오병태(1994)는 유료노인시설입주 희망자들은 입주준비를 위해 경제적인 노후대책을 세우며, 노후대비를 위한 조달방법으로는 재산소득, 연금, 취업소득 등이 있다. 특히 실버타운의 입주비용 마련방법은 저축, 퇴직금, 연금, 보험 등으로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자녀의 경제적 도움 없이 노후를 자립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식으로 볼 수 있다(안승덕 2000). 일반적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퇴직금으로 입주비용을 마련하는 비율이 높고 연령이 낮을수록 보험, 연금 등으로 입주비용을 마련하는 비율이 높다(박종천 1999).

실버타운 선호에 관련된 노후준비정도에 관한 연구들(박종천 1999; 김옥현 2001; 조희자 2001)은 대체로 노후대책유무와 실버타운 선호도가 관련이 있음을 밝혔으며, 노후계획정도가 높은 집단이 실버타운을 더 많이 선호하고 있었다. 실버타운이 입주자의 부담에 의해 운영되기 때문에 노후대비저축은 실버타운 입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김순미 등 2004). 그러므로 현재의 기혼여성들이 노후대비를 얼마나 하느냐 하는 것은 유료노인복지시설 운용뿐만 아니라 유료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요구 자체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앞서 중년기의 노후책임관이 자녀부양에서 자기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이 우세하고, 노후에 자녀동거에 관한 의식 역시 독립적

의식이 우세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노후책임관과 노후 자녀동거관은 노인복지시설 입주 의사와 관련되는 변인일 수 있다. 즉, 인간의 수명이 늘어나면서 삶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필연적으로 질병을 경험하게 되는데, 중년기의 노후의 독립적인 삶에 대한 선호는 노인복지시설입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선행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

2. 기혼여성의 부양부담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입주의사

부양부담이란 가족이 노인을 부양하면서 경험하는 신체적, 심리적 또는 정서적, 사회적, 재정적 문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부양부담에 관한 이진경(1990)은 시부모를 부양하는 대부분의 기혼여성들은 윤리적 책임과 시부모의 기대에 따라 동거 하고 있으며, 동거하는 성인자녀들은 별거하는 자녀보다 더 많은 부양행동 및 보호를 제공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부양을 짐스러운 것으로 여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핵가족보다 확대가족에서 기혼자녀 세대의 부모 부양부담도가 더 높다고 했다. 특히, 성향숙(2000)은 중년 여성들의 부양부담감에 관한 연구에서 여성부양자들의 연령은 일반적으로 40대와 50대의 중년여성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면서, 여성의 생애주기 중 이 시기는 부모 부양 뿐 아니라 자녀의 입시·진로문제와 자신의 갱년기가 중첩되는 때로서 중년기 위기감이 올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다고 했다.

한편, 부양부담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입주의향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대부분이 노인요양시설 등 의료서비스가 가능한 시설에 한정되어 있고, 부양자의 노후에 관한 시설입주의 의사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부양하고 있는 노부모의 시설입주의사에 관해 연구 되어졌다.

Teresi 등(1993)은 가족부양자가 노인의 특성(신체적, 인지적, 기능적 상태), 비공식적 지원체계의 특성(이용가능성 등), 공식적 보호체계의 특성(이용가능성, 자격요건 등)에 기초해서 시설 이용을 결정한다고 보았다. 또한, 부양자들이 부양부담을 덜기 위해 외부의 도움을 받는 경우도 노

인의 시설입주의 가능성이 오히려 크다고 밝히고 있다(Jett et al 1995 ; Newman & Struyk 1990). 차홍봉(1998)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치매, 뇌졸중, 기타 와상 노인의 가구를 대상으로 가족부양자들의 장기요양보호서비스의 이용선호도와 그 결정요인을 다변량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는데, 노인요양원 이용에 대한 선호도에 가장 강한 효과를 지니는 것은 가족부양자의 부양부담이었다. 즉 부양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는 경우 가족부양자의 시설보호 및 지역사회보호서비스에 대한 이용선호도가 유의하게 큰 것으로 밝혀졌다. 유료요양시설이용 영향에 미치는 요인에 관해 연구한 한승의(2000)는 서울, 경기도에 소재하는 종합병원 및 대학병원에 입원한 60세 이상의 환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는데 그 결과, 환자간호 부담감이 높을수록, 종교가 없을 때, 시간적 부담감이 높을수록, 건강상태가 좋지 않을수록, 배우자가 없을 때 그리고 학력이 높을수록 유료노인요양시설의 이용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응답자의 44.1%가 이용 하겠다 혹은 이용할 것 같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다. McFall과 Miller(1992)는 너싱홈 이용의 위험요인은 나이, 인종(백인), 제한된 IADL(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의 수로 나타났으며, 간호제공자의 부양부담감과 공식적 서비스의 사용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고했다.

이와 같이 부양부담이 노인복지시설입주 의사에 영향을 미친다는 대부분의 연구는 노인요양시설에 한정되어 있고, 입주대상자가 부양자가 부양하는 노인이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정성을 극복하기 위해 노인요양시설만이 아닌 유료노인복지시설로 범위를 넓혔고, 미래적인 관점에서 노인부양정책 개발에 도움을 주기 위해 부양하는 노부모의 입주의사가 아닌 자신의 노후에 노인복지 시설에 입주할 의사에 관해 연구하고자 하였다.

3. 사회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입주의사

노인복지시설입주와 관련된 사회인구학적 특성으로는 나이, 학력, 직업, 거주지역, 성별 등이 있다.

먼저, 나이에 따른 유료노인복지시설 선호도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노인복지시설 입주에 호의적이었다. 김기수(1995)의 연구에서는 60세 미만의 연령층에서 연령이 증가할수록 실버타운에 대한 필요성을 더 크게 느끼고 있었고, 박영옥(2001)의 연구에서는 연령이 낮을수록 비용이 비싸도 입주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사가 강했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50대는 51.1%가 입주하지 않겠다고 높게 나타났다. 또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1998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에 의하면, 25-34세 연령군의 경우 양로시설이나 요양시설같이 시설이용 희망률이 67.0%에 달하고 있고, 35-44세는 60.5%, 45-54세는 46.3%, 55-64세는 33.2%로 연령이 낮을수록 유료노인복지시설이용 희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정경희 2000). 이 밖에 박명옥(1998), 조희자(2001) 등의 연구에서는 저연령층 일수록 유료노인복지시설에 대해 호의적이었던 반면 고연령층은 유료노인복지시설에 대해 덜 호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에 따른 유료노인복지시설 선호도는 연구에 따라 결과가 일관적이지 않다. 김기수(1995)의 연구는 중학교 이상의 교육수준인 사람들의 대다수가 유료노인복지시설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박영옥(2001)의 연구에서 전반적으로 입주의사는 학력이 높을수록 입주하겠다는 의사가 높게 나타났으며, 학력이 낮을수록 입주하지 않겠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그럼에도 가장 고학력층이라 할 수 있는 대학원 졸업이상의 학력은 입주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높았다. 이 밖에 박종천(1999), 조희자(2001)의 연구에서도 중학교 이상의 교육수준인 사람들의 대다수가 유료노인복지시설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직업에 따라서도 노인복지시설입주의사는 달라진다. 유료노인복지시설 선호도에서는 실버타운에 입주하는 비율이 다를 것이라는 가정하에 이루어진 Williams(1990)의 연구에 따르면 전문직이나 사무직이 입주비율의 60% 정도를 차지하였

Table 1. Characteristics of married women

(N=387)			
Characteristics	Section	Frequency (persons)	%
Age	21-29	37	9.6
	30-39	170	43.9
	40-49	116	30.0
	over 50's	64	16.5
Schooling	under middle school	54	14.0
	high school	173	44.7
	over university	160	41.3
Occupation	office work • professional	139	35.9
	business • sales and service, production	58	15.0
	housewife • others	190	49.1
Residential area	metropolis	157	40.5
	small and medium city	167	43.2
	rural town	63	16.3
Religion	Christian	143	37.0
	Catholic	53	13.7
	Buddhism	70	18.1
	without religion	110	28.4
	others	11	2.8
Living with old parents	living with old parents	109	28.2
Living without old parents	living without old parents	278	71.8
Total		387	100.0

고, 20% 정도는 노무직이었다. 또 실버타운 내에서 자가 소유집단은 전문직이나 사무직인 경우가 많으며 실버타운 내에 임차집단은 노무직인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직업에 따라서는 전문직이나 사무직이 노인복지시설을 더 많이 선호함을 알 수 있다.

거주 지역에 따라 현재 거주하는 지역의 위치 및 규모는 유료노인시설에 대한 다양한 정보의 수집과 접촉가능성 및 시설경험을 용이하게 하여 실버타운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게 되며 실버타운 입주에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이것은 도시거주자들이 스스로 노후 부양을 해결하고자 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실버타운을 선택하려는 비율도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을 것이라는 점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김순미 등 2004).

마지막으로 성별과 유료노인복지시설 입주의사와의 관계를 조사한 선행연구를 보면 연구결과는 일관적이지 않다. 박영옥(2001)의 연구는 입주의사를 밝힌 응답자 73.7% 가운데 남성이 72.2%, 여성이 75.7%로 남성이 조금 낮게 나타났다. 비용이 비싸도 입주하겠다는 적극적인 입주의사는 여성이 20.7%로 19.2%에 해당하는 남성보다 더 높았으며, 요양이 필요할 때의 입주의사 또한 여성이 32.4%로 남성 15.9% 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이 여성이 남성보다 유료노인복지시설을 더 선호한다는 결과가 있는 반면(석희옥 2001), 남성이 여성보다 유료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선호도가 더 높은 결과도 있으며(박명옥 1998), 성별에 따라 유료노인복지시설의 선호도 차이가 없는 연구결과도 있었다(김기수 1995) 그러나 본 연구에서 대상을 기혼여성으로 한정했기 때문에 성별 분석을 제외하였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자 및 자료수집 절차

본 조사는 서울, 대전 그리고 보령, 서산, 아산, 당진 지역에 거주하는 20대에서 50대의 노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기혼여성으로 2003년 7월 10여명의 사회복지 전공 기혼여성들 대상으로 표본조사

를 하여 설문지의 오류를 수정한 후, 2003년 7월20일부터 9월20일까지 60일 동안 실시하였다. 총 400부의 설문지를 배부 조사하였고, 이중 무응답이 있거나 불성실한 설문 13부를 제외하고 총387부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조사방법은 연구자가 양질의 자료와 조사대상자들의 이해를 돕고, 지면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조사요원에게 본 연구의 목적과 설문지의 의도, 어려운 용어 등 사전 교육을 시킨 후 직접 방문하여 설문지를 배부하고 수거하는 방법을 취했다.

2. 측정 척도

본 연구에서 사용된 질문지는 입주의사, 부양부담과 부양자의 노후생활계획에 대한 문항으로 작성하였다.

1) 노인복지시설 입주의사

노후에 노인복지시설에의 입주의사는 박명옥(1998), 오귀옥(1999)의 연구의 조사 도구를 참고하여 그 여부를 측정하는 문항으로 작성하였다.

2) 노후 생활계획

기혼여성의 노후생활계획은 기혼여성 자신의 노후변수로 부양책임관, 노후대비저축, 노후자녀동거관에 관해 질문하였다.

부양책임관을 알아보기 위해, “부모님에 대한 부양책임을 누가 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노부모 스스로 자립, 장남 부부, 모든 자녀, 경제력 있는 자녀, 부모님이 함께 살고 싶어하는 자녀, 국가와 사회’를 선택문항으로 했다. 그리고 노후대비 저축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귀하는 노후대책을 위해 월평균 어느 정도 저축(저축, 개인연금포함)하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했고, 노후자녀동거관을 알아보기 위해 “귀하는 노후에 누구와 함께 동거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부부만, 자녀와 함께, 양로원등 시설입주, 기타를 선택문항으로 했다.

3) 부양부담

부양부담에 관한 측정도구는 서병숙과 이신숙(1993)의 연구를 기초로 전체 17개 문항으로 ‘노

부모부양부담을 느낀다. 가족, 시대 형제들간에 부양의 문제로 불화가 생긴다. 부모님 부양으로 인한 신체적 피로 때문에 직장일(또는 가사등)을 할 수 없다고 느낀적이 있다' 등의 질문에 '매우 그렇다' 5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으로 5점 Likert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양부담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17개 문항의 신뢰도는 Cronbach $\alpha = .95$ 이었다.

3.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 및 백분율을 산출하였고, 각 척도들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내적 일관성 신뢰도 계수 Cronbach α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기혼여성들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입주의사를 살펴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통해 분석하였고, 입주의사에 따른 부양부담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일원변량 분석과 사후검정으로 Duncan을 실시하였다. 끝으로 기혼여성들의 시설입주 예측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사회 인구학적 변수와 부양부담으로 판별분석을 통해서 시설입주 예측요인에 관하여 규명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결과해석

1. 기혼여성의 노후 생활계획 및 부양부담의 일반적 경향

1) 기혼여성의 노후 생활계획

조사대상자인 기혼여성의 노후 생활계획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Table 2).

노부모님에 대한 부양책임에 관한 질문에 전체 387명중 56.8%가 '모든 자녀'에게 부양의 책임이 있다고 가장 많이 응답했고, 11.9%는 '노부모 스스로 자립'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그 밖에 '경제력 있는 자녀', '부모님이 함께 살고 싶어하는 자녀', '장남부부', '국가와 사회' 순으로 부양책임이 있다고 답했다. 따라서 기혼여성들은 '노부모 스스로 자립'해야 한다는 11.9%와 '국가와 사회에 책임이 있다'는 4.4%를 제외한 83.6%가 노부모의 부양책임은 자녀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서전과 박혜인(1992)의 연구에서 노인의 부양책임에 대해 조사한 결과 '부모자신'이 36.7%로 가장 높았고, "아들, 딸 구별 없이 자녀 모두"가 31.5%, "아들 형제 모두", "장남에게만" 그리고 "모르겠다" 순으로 나타난 연구결과 보다 노부모 스스로 자립해야한다는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 Married women's plan of life in the aged

		N = 387	
	Section	Frequency (persons)	%
Responsibility for support in the old age	independence	46	11.9
	couple of the oldest son	33	8.5
	all children	220	56.8
	child with economic ability	36	9.3
	the child with whom parents want to live together	35	9.0
	state and society	17	4.4
Living together in the old age	couple only	302	78.0
	with children	25	6.5
	moving into welfare facilities for aged	32	8.3
	others	28	7.2
Saving in the old age (10,000 won)	<10	69	17.8
	10-50	238	61.5
	50-100	54	14.0
	100<	26	6.7

노후에 누구와 동거하겠느냐는 질문에 부부만 동거하겠다고 78.0%로 압도적이었다. 그밖에 자녀와 함께 동거하겠다고 6.5%, 시설에 입주하겠다고 8.3%, 기타 7.2%로 나타났다. 이는 주택공사(1993)의 연구에서 현재 중년부부가 노인이 되었을 때 선호하는 주거환경은 81.1%가 부부끼리 살기를 원했다와 일치하는 것으로 기혼여성부양자들은 노후에 부부끼리 동거하기를 희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기혼여성이 자기 노후를 위한 월 저축액은 10-50만원 61.5%로 가장 많았고, 10만원 미만 17.8%, 50-100만원 54명 14.0%, 100만원이상 6.7% 순이었다. 노후 준비를 위한 월 저축액이 50만원이하가 79.3%로 나타났다.

2) 기혼여성의 부양부담

기혼여성의 노부모 부양부담에 대해 알아본 결과, 평균 2.39로 중앙값인 3점보다 낮았다(Table 3).

우리 사회가 며느리들에게 거는 기대나 사회적 압력으로 실제 지각하는 것보다 양호하게 응답했을 가능성이 있을 수 있고, 또한 동거하는 자녀가 별거하는 자녀보다 더 많은 부양부담을 느낀다는 이진경(1990)의 연구에서와 같이 본 연구의 대상자들이 대부분 노부모와 별거하고 있어 노부모 부양부담의 수준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Married women's burden of the supporting aged parents

N = 387	
Section	Mean(SD)
Burden of supporting aged parents	2.39(.83)

2.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입주의사의 차이

전체 387명중 노인복지시설 입주 의사가 있는 308명을 대상으로 기혼여성의 특성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입주의사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기혼여성의 연령, 학력, 직업, 거주 지역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입주의사에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다(Table 4).

나이에 따른 차이를 보면, 20대, 30대, 40대 기혼

여성들은 건강상 요양이 필요할 때 보다 노인편의 시설과 서비스를 더 중요시 했고, 반면 50대이상 기혼여성들은 노인편의시설과 서비스 보다 요양을 더 중요시 하는 것으로 보아 노년기에 가까운 50대 이상이 건강문제에 더 많은 관심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학력에 따라서는 '중졸이하'와 '고졸', '대졸이상'의 기혼여성은 모두 노인편의시설과 서비스가 제공된다면, 요양이 필요할 때, 생활비가 저렴할 때 순으로 입주할 의사가 있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고졸'과 '대졸이상' 기혼여성 부양자는 '노인편의 시설과 서비스가 제공된다면' 과 '요양이필요할 때' 두 항목에 각각 '고졸'은 88.9%, '대졸이상'은 90.7%로 압도적인 대답을 했다. 따라서 학력이 높을수록 '노인편의시설과 서비스가 제공된다면' 입주하겠다는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고, 학력이 낮을수록 '생활비가 저렴할 때', '무료시설이라면' 입주하겠다는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직업에 따른 차이를 보면, 다른 직업에 종사하는 기혼여성들보다, 사무관리·전문직에 종사하는 기혼여성들이 '노인편의시설과 서비스가 제공된다면' 입주할 의사가 있다고 가장 많이 답해, 사무관리·전문직 기혼여성들이 노인편의시설과 서비스를 더 많이 중시함을 알 수 있었다.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서도 유의한 결과가 발견되었는데, '대도시'와 '중소도시',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기혼여성 모두 '노인편의시설과 서비스가 제공된다면' 입주할 의사가 있다고 가장 많이 답했으며, 세 지역 모두 노인편의시설과 서비스가 제공된다면, 요양이 필요할 때, 생활비가 저렴하다면, 무료시설이라면 순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혼여성의 나이·학력·직업·거주 지역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입주의사는 모두 '노인편의 시설과 서비스가 제공된다면' 입주할 의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노인복지시설입주의사에서 기혼여성들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이나 특성에 상관없이 '노인편의시설과 서비스'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기혼여성의 노후 생활계획 및 부양부담에 따른 입주의사의 차이

부양책임에 따른 입주의사의 차이를 알아본 결

Table 4. Intent to move into welfare facilities for the aged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married women N(%)

Section	Intent to move into welfare facilities for the aged				Total (%)	
	If convenient facilities for the aged and service are provided(%)	When medical treatment is required(%)	When life cost is low(%)	If it is gratuitous facilities(%)		
Age	20s'	16(55.2)	11(37.9)	1(3.4)	1(3.4)	29(100.0)
	30s'	89(64.5)	31(22.5)	14(10.1)	4(2.9)	138(100.0)
	40s'	53(63.9)	18(21.7)	8(9.6)	4(4.8)	83(100.0)
	over 50s'	22(37.9)	25(43.1)	7(12.1)	4(6.9)	58(100.0)
χ^2 value		17.245*			308(100)	
Schooling	under middle school	15(34.1)	13(29.5)	10(22.7)	6(13.6)	44(100.0)
	high school	79(58.5)	41(30.4)	11(8.1)	4(3.0)	135(100.0)
	over university	86(66.7)	31(24.0)	9(7.0)	3(2.3)	129(100.0)
χ^2 value		26.816***			308(100.0)	
Occupation	office work · professional	79(71.2)	20(18.0)	8(7.2)	4(3.6)	111(100.0)
	business · sales and service	21(48.8)	18(41.9)	2(4.7)	2(4.7)	43(100.0)
	others	80(51.9)	47(30.5)	20(13.0)	7(4.5)	154(100.0)
χ^2 value		15.903*			308(100.0)	
Residential area	metropolis	67(51.9)	35(27.1)	17(13.2)	10(7.8)	129(100.0)
	small and medium	85(67.5)	32(25.4)	8(6.3)	1(0.8)	126(100.0)
	rural town	28(52.8)	18(34.0)	5(9.4)	2(3.8)	53(100.0)
χ^2 value		14.382*			308(100)	

* p<.05 ** p<.01 *** p<.001

과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Table 5).

본인의 노후에 대한 부양책임에서 '스스로 자립'해야 한다고 응답한 38명중 50%가 '노인편의 시설과 서비스가 제공된다면' 입주할 의사가 있고, 31.6%가 '요양이 필요할 때' 입주의사가 있다고 했다. '장남부부'에게 부양책임이 있다고 한 26명 중 61.5%가 '노인편의시설과 서비스가 제공된다면' 입주의사가 있다고, '요양이 필요할 때', '생활비가 저렴할 때'는 각각 11.5%로 같았고, '무료시설이라면' 입주의사가 있다는 기혼여성 부양자는 15.4%이었다.

부양책임이 '모든 자녀'에게 있다고 응답한 177명중 59.3%가 '노인편의시설과 서비스가 제공된다면' 시설에 입주의사가 있고, 29.9%는 '요양이 필요

할 때'라고 했다. '경제력 있는 자녀'에게 부양책임이 있다고 한 27명중 66.7%는 '노인편의 시설과 서비스가 제공된다면' 입주의사가 있다고 했고, 18.5%는 '요양이 필요할 때' 입주할 의사가 있다고 대답했다.

부양책임이 '부모님이 함께 살고 싶어하는 자녀'에게 있다고 대답한 25명중 48.0%가 '노인편의 시설과 서비스가 제공된다면' 입주할 의사가 있다고 했으며, '국가와 사회'에 부양책임이 있다고 응답한 15명중 66.7%가 '노인편의 시설과 서비스가 제공된다면' 입주할 의사가 있다고 했다. 결과적으로 부양책임에 따라서도 '노인편의시설과 서비스가 제공된다면' 입주하겠다는 기혼여성이 가장 많음을 알 수 있다.

Table 5. Intention to move into welfare facilities for the aged according to the responsibility of married women N(%)

Section	Responsibility for support in the aged						χ^2 value
	independence	couple of the oldest son	all children	child with economic ability	child with whom parents want to live together	state and society	
If convenient facilities for the aged and service are provided	19(50.0)	16(61.5)	105(59.3)	18(66.7)	12(48.0)	10(66.7)	25.638*
When medical treatment is required	12(31.6)	3(11.5)	53(29.9)	5(18.5)	7(28.0)	5(33.3)	
When life cost is low	6(15.8)	3(11.5)	15(8.5)	1(3.7)	5(20.0)	0(0)	
If it is gratuitous facilities	1(2.6)	4(15.4)	4(2.3)	3(11.1)	1(4.0)	0(0)	
Total	38(100)	26(100)	177(100)	27(100)	25(100)	15(100)	308(100)

* p<.05

노후동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입주의사의 차이에 관한 분석은 Table 2에서 보여 지듯이, 1차적으로 노후 동거는 부부만 동거하기를 가장 많이 희망하고 있어 제외하였다. 이는 문현상(1997)의 연구에서 40대와 50대를 대상으로 노후에 선호하는 주거시설 유형을 조사한 결과 노후에 배우자가 있고, 건강상태가 좋을 때는 대부분 일반주택을 원하나 건강이 좋지 않거나 배우자와 사별하여 홀로 살게 되면 유료양로원, 유료요양원, 노인촌 등 노인전용 주거시설에 의존하겠다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는 것과 같은 결과였다. 반면 노후에 노인복지시설에 입주할 의사가 있다는 308명의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노후

저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입주의사를 교차분석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able 6).

노후 노인복지시설 입주 의사와 노부모 부양 부담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결과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Table 7). ‘입주하지 않겠다’는 집단보다 전반적으로 조건에 따라 입주하겠다는 집단이 부양 부담이 많이 나타났다. 자기 노후에 ‘무료시설이라면’ 입주하겠다는 집단이 부양 부담을 가장 많이 느끼는 것을 알 수 있고, 다음으로 ‘노인편의 시설과 서비스가 제공된다면’, ‘요양이 필요할 때’, ‘생활비가 저렴할 때’ 입주할 의사가 있다고 대답한 순으로 부양 부담을 많이 느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기혼여성

Table 6. Intent to move into welfare facilities for the aged according to the saving in the aged

Section	Saving in the old age (10,000 won)				χ^2 value
	<10	10-50	50-100	100<	
If convenient facilities for the aged and service are provided	36(63.2)	111(58.4)	25(61.0)	8(40.0)	10.782
When medical treatment is required	13(22.8)	49(25.8)	13(31.7)	10(50.0)	
When life cost is low	4(7.0)	21(11.1)	3(7.3)	2(10.0)	
If it is gratuitous facilities	4(7.0)	9(4.7)	0(0)	0(0)	
Total	57(100)	190(100)	41(100)	20(100)	308(100)

Table 7. Intent to move into welfare facilities for the aged according to the burden of supporting aged parents

					N=386	
Section	The burden of supporting aged parents	Frequency (persons)	Mean(SD)	F	Duncan	
Intention to move into welfare facilities for the aged	If convenient facilities for the aged and service are provided	179	2.50(.86)	4.72**	B	
	When medical treatment is required	85	2.46(.89)		A	
	When life cost is low	30	2.45(.85)		A	
	If it is gratuitous facilities	13	2.71(.44)		B	
	Group without intent to move	79	2.05(.69)		A	

** p<.01

의 노후 생활계획 및 노부모 부양부담에 따른 입주 의사의 차이에서는 노후생활계획 중 부양책임에 따른 입주의사는 모두 노인편의시설과 서비스가 제공된다면 입주하겠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노후 저축에 따른 입주의사는 유의하지 않았다. 입주의사에 따른 부양부담의 차이에서는 부양부담이 클수록 입주할 의사가 있음이 나타났고, 무료시설이라면 입주하겠다는 의사를 가진 기혼여성이 부양부담을 가장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기혼여성의 노인복지시설입주 예측요인
기혼여성의 노인복지시설입주 예측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판별분석을 실시하였다. 투입된 판별기능에 근거한 분류분석은 전체적으로 55.3%의 판별적중률을 나타내었는데, 노후에 노인복지시설에 입주할 의사가 있는 집단은 56.2%, 그리고 노인복지시설에 입주할 의사가 없는 집단은 43.8%의 판별적중률을 나타내었다. 즉 본 연구에서 사용한 예측변수

Table 8. Factors to forecast whether married women are to move into welfare facilities for the aged

					N=387	
Factors	Group with intent to move into facilities in the old age (N=308)	Group without intent to move into facilities in the old age (N=79)	F	Structure coefficient of discrimination		
	M(SD)	M(SD)				
Age	39.91(8.85)	39.15(7.56)	.49	.157		
Schooling	4.26(0.89)	4.25(0.81)	.005	.015		
occupation ¹⁾	.36(0.48)	.35(0.48)	.014	.026		
Residential area ²⁾	.17(0.38)	.13(0.33)	.973	.222		
Responsibility for support ³⁾ in the old age	.12(0.33)	.10(0.30)	.225	.107		
Saving in the old age	2.08(0.76)	2.16(0.78)	.807	-.202		
The burden of support	2.49(0.85)	2.05(0.69)	17.814***	.949		

Wilks' Lambda=.951 Chi-square=19.095** p=.008

p<.01 * p<.001

1) office work · professional = 1, business · sales and service, production, others = 0 2) rural town = 1, metropolis, small and medium city = 0

3) independence =1, others(child, state and society etc) = 0

들은 노후에 노인복지시설입주의사가 있는 기혼여성들을 더 정확하게 예측하였다(Table 8).

Table 8에서 제시한 예측변수들은 Wilks' Lambda에 근거한 방법이 사용되었으며 enter analysis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모델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Chi-square=19.095 p=.008), 부양부담(2.49)이 판별함수에 영향을 주었다. 구체적으로 기혼여성들의 부양부담에 대한 변수들이 노후에 노인복지시설입주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기혼여성들의 부양부담이 노후 노인복지시설입주의사에 가장 강력한 예측변수였다. 즉, 노부모 부양부담이 클수록 노후에 노인복지시설에 입주할 의사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편 기혼여성들의 나이, 학력, 직업, 거주지역, 부양책임, 노후저축은 노후에 노인복지시설입주의사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혼여성들이 노후 노인복지시설입주 의사를 결정하는 것은 노부모 부양으로 인한 부담감으로서 기혼여성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이나, 노후를 위한 저축은 노인복지시설입주 영향에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분석의 결과를 종합하면, 노후에 노인복지시설에 입주할 의사가 있는 기혼여성은 현재 노부모 부양으로 인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기혼여성들이 노후 노인복지시설 입주 영향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V. 논의 및 제언

1. 연구 결과 및 논의

노부모부양의 주부양자인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부양자의 노후 생활계획과 노인복지시설 입주 영향변인에 대하여 알아보기 위한 본 연구에서는 노부모부양의 주부양자인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기혼여성들의 노후 생활계획, 부양부담에 따른 노후에 노인복지시설에 입주할 의사를 파악해보고, 노후에 노인복지시설입주의사를 예측할 수 있는 요인을 규명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첫째, 기혼여성의 특성에 따른 시설입주의사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았다. 둘째, 기혼여성의 노후 생활계획 및 노부모 부양부담에 따른 입주의사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았다. 셋째, 기혼여성의 시설입주 영향 변인에 대해 예측해 보았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복지시설 입주의사, 노후 생활계획, 부양부담을 통해 알아본 기혼여성들의 노후 노인복지시설에 입주의사는 '노인편의시설과 서비스가 제공된다면' 입주할 의사가 있다고 가장 많이 대답했다. 이는 생활비나 무료시설이라는 금전적인 문제보다 노인편의시설과 서비스를 중요한 요인으로 인지하고 있으며, 노인편의시설이나 서비스가 노인복지시설입주의사에 더 많은 작용을 함을 알 수 있다. 기혼여성들의 부양책임, 노후동거, 노후저축을 통해 노후 부양관을 알아보았는데, 노부모 부양책임은 모든 자녀에게 있다고 가장 많이 응답했다. 기혼여성들의 노후동거 의사는 부부만 동거하겠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아 자녀와의 동거보다 부부간 동거를 희망함을 알 수 있다. 기혼여성들의 노후저축은 10-50만원이 가장 많았다. 기혼여성들의 노부모 부양부담은 평균 2.39로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기혼여성들이 노부모 부양으로 인한 부담감을 효율 중시하는 가족주의 가치관하에서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음과 대상자들이 대부분 노부모와 비동거를 하고 있어 부양부담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기혼여성들의 특성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입주의사를 교차 분석한 결과, 나이·학력·직업·거주 지역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입주의사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나이에 따라 20대·30대·40대는 노인편의시설과 서비스가 제공된다면 입주의사가 있다고 가장 많이 답했고, 50대 이상은 요양이 필요할 때 입주의사가 있다고 가장 많이 답했다. 이는 노년기가 멀지 않은 50대 이상의 기혼여성들은 건강문제를 보다 중요하게 인식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학력이 높을수록, 사무관리·전문직 종사자들이,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기혼여성들이 노인편의 시설과 서비스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주시 고려사항에서 시설의 편리성과 서비스 제공에 가장 중요시 여긴 것과 같이 기혼여성들의 각 특성과 상관없이 시설의 편리성과 서비스 제공이 노인복지시설입주의사에 가장 큰 작용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기혼여성의 노후 생활계획 및 노부모부양부담에 따른 입주의사의 차이에 관한 분석에

서, 부양책임에 따라 노인편의시설과 서비스가 제공된다면 입주하겠다는 기혼여성이 가장 많았다. 노후 저축에 따른 시설입주의사의 분석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부양부담에 따른 입주의사의 차이는 입주하지 않겠다는 기혼여성보다 전반적으로 조건에 따라 입주하겠다는 기혼여성의 부양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고, 무료시설이라면 입주하겠다는 기혼여성의 부양부담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양부담이 큰 부양자는 경제적인 부담을 가장 크게 느껴 본 연구에서도 시설에 입주할 의사는 있으나 무료시설이라면 입주하겠다는 대답으로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고 있음을 내포하고 있다.

넷째, 기혼여성의 나이·학력·직업·거주 지역·부양책임·노후저축·부양부담이 노인복지시설입주에 미치는 영향을 판별분석을 통해 분석한 결과, 부양부담만이 기혼여성의 노후 노인복지시설입주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부모 부양부담을 느끼고 있는 기혼여성들이 자신의 노후에는 자녀에게 같은 부양부담을 주지 않고 노인복지시설입주를 희망하여, 현재 자신이 느끼는 부양부담을 자녀에게 되풀이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것은 자녀 의존형에 탈피해서 스스로의 노후에 대한 책임을 갖는 것으로 보임을 알 수 있다.

2. 연구의 제한점 및 제언

노부모부양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고, 노부모 부양부담으로 많은 사회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시점에서 노부모부양의 주부양자인 기혼여성들에 대한 연구는 필요하다. 현재 치매노인과 와병노인 그리고 그 부양자들의 노인복지시설입주 필요성과 입주 의사에 관한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주부양자인 기혼여성들의 노후 생활계획과 노후 노인복지시설입주의사에 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연구가 한정되어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하여 기혼여성들의 노후 생활계획과 노인복지시설입주의사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예측해 봄으로써 노인복지시설입주의사의 영향요인을 알아내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이 있는데, 첫째, 본 연구는 대상자가 서울·대전 그리고 충남 시·군에 한정되어 있어 전체 기혼여성에게 일반화 시키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고 생각한다.

둘째, 조사대상자가 생활수준이 중산층 정도의 기혼여성으로 정확한 소득수준이 조사되지 않았으며, 노부모와 동거 유무에 따른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아 일반화 하는 데는 무리가 따른다고 본다.

이와 같은 제한점을 가지고 있는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몇 가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부모 부양 부담이 기혼여성들의 노후 노인복지시설입주의사를 예측하는 요인임을 알았다. 주부양자인 기혼여성들의 부양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정책적으로 연구되어지고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선행연구와 본 연구에서 알 수 있듯이 점차로 자기부양을 선호하는 독립적인 노후 부양관을 가지고 있는 기혼여성들의 수요에 맞는 노인복지시설이 갖추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현재 실행되는 노인복지 정책들이 노인 대상 정책으로 국한되어 있는데, 부양자에 대한 정책적 지원으로 노부모 부양의 주부양자인 중년 여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과 연구가 보다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본 연구에서 알 수 있듯 노인편의시설과 서비스 제공을 가장 중요시 하는 차세대 노인집단의 선호를 알고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보수와 지원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권오정·김대년(2004) 한국 중년층의 유료요양시설에 대한 견해.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4), 1-14.
 김기수(1995) 실버타운 조성 모형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학위 논문.
 김두섭(2000) 장기 요양보호 욕구 실태조사 및 정책 방안. 보건복지부
 김순미·홍성희·김혜연·김성희(2004) 봉급생활자의 은퇴설계; 노인부양으로서 유료노인시설 선호 및 요구도. 대한가정학회지 42(5), 175-192.
 김옥현(2001) 광주지역 중장년층 욕구조사를 통한 실버타운 개발 방향에 관한 연구. 동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윤정·최윤희(2004) 중년기 부부의 결혼만족도가 노후 준비도에 미치는 영향. 노인복지연구 24(2), 197-213.

- 김혜연·김성희(1999) 노인의 부양유형 선호와 영향 요인. *대한가정학회지* 37(2), 85-97.
- 대한주택공사(1993) *미래주택 2000*. 서울: 대한주택공사 주택연구소.
- 문현상(1997) 유료노인복지시설공급의 필요성과 정책방향. *보건복지포럼* 97(10), 53-60.
- 박명옥(1998) 유료노인복지시설 입주의식 및 선호도. *청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영옥(2001) 중장년층의 노인복지시설 입주의식 및 선호도에 관한 연구. *동덕여대 석사학위논문*.
- 박종천(1999) 실버타운의 전망과 개발방향에 관한 연구. *광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태숙(2000) 한국 유료노인복지시설의 선호도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 배계희(1988) 중년기의 노후준비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서병숙·이신숙(1993) 부양자스트레스 척도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13(1), 39-54.
- 서전·박혜인(1992) 중년기 가족의 노부모 부양행동 및 노후준비에 관한 연구. *과학논집* 18, 143-166.
- 석희옥(2001) 유료노인복지시설 이용에 대한 의식조사.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설말순(1999) 실버타운 생활이 노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성향숙(2000) 노인부양여성의 부양부담 분석에 따른 여성복지대책.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신영숙(1998) 중년층이 선호하는 미래노인주거 환경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6(2), 105-120.
- 신영숙(2004) 중년층과 노년층의 노인시설주거 선택속성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 논문집* 15(2), 43-54.
- 신하연(1997) 중년기 소비자들의 경제적 노후대비 수준과 실버타운에 대한 요구. *서울대학교 학위논문*.
- 안승덕(2000) 우리나라 실버산업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대전광역시 시민의식을 중심으로. *대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오귀옥(1999) 중장년층의 실버타운에 대한 요구도와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오병태(1994) 실버타운의 상품화 계획. *전남지역 경제조사*, 8-27.
- 오찬옥·이연숙 (1994) 중년층의 배경변인에 따른 노인주거특성에 대한 선호. *한국주거학회지* 4(1), 29-38.
- 이가옥(1990) 노인부양체계 및 노인부양지표의 개발. *한국노년학* 10(1), 146-162.
- 이미애(1998) 노인요양시설입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노년학* 18(2), 88-96.
- 이민경(2003) 실버타운 선호도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민경·김양희·박정윤(2004) 중년기의 실버타운 선호도 및 관련 변인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9(1), 1-23.
- 이연숙(1999) 한국노인의 주거 만족도에 관한 연구. *생활과학논집* 13.
- 이종강(2004) 유료노인시설입소 욕구 영향변인에 관한 연구. *목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진경(1990) 시부모부양태도에 관한연구: 고학력 취업여성과 비취업 여성과의 비교.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임월(1997) 중년기 부부의 노부모 부양행동 및 노후 준비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경희(2002) 가족변화에 따른 노인부양실태와 정책적 함의. *보건복지포럼* 2002(6), 29-40.
- 조세희(2002) 노인가족부양자의 부양부담이 장기요양보호서비스 필요도 및 이용의향에 미치는 영향. *한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희자(2002) 중장년층의 실버타운 요구도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차홍봉(1998) 장애노인 부양가족의 장기요양보호서비스 이용선호도와 그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통계청(2002-2005) *사회통계조사*.
- 한승의(2000) 유료노인요양시설의 이용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Colerick EJ, George LK(1996) Predictors of institutionalization among caregivers of patients with Alzheimers Disease. *Journal of the American Geriatrics Society* 34(7), 493-98.
- Deimling G, Poulshock SW(1985) The transition from family in-home care to institutional care ; Focus in health and institutional issues as predisposing factors. *Research on Aging* 7, 563-576.
- Dwyer JW, Miller MK(1990) Differences in characteristics of the caregiving net work by area of residence : Implications for primary caregiver stress and burden. *Family Relation* 39, 27-37.
- Jett AM, Tennstedt S, Crawford S(1995) How does formal and informal community care affect nursing home use?. *Journal of Gerontology* 50B(1), S4-S12.
- McFall S, Miller BH(1992) Caregiver burden and nursing home admission of frail elderly persons. *Journal of Gerontology* 47, 573-579
- Morycz RK(1985) Caregiving strain and the desire to institutionalize family members with Alzheimers diseas : Possible predictors and model development. *Research*
- Mui AC(1994) Long-Term care service used by frail elders: is ethnicity a factor? . *The Gerontologist* 34, 2-190.
- Newman S, Struyk R, Wright P, Rice M(1990) Overwhelming odds: Caregiving and the risk of institutionalization. *Journal of Gerontology* 45(5), S173-183.
- Terese J, Holmes D, Benenson E, Manaco C(1993) Evaluation of primary care nursing in long-term care : Attitudes, morale and satisfaction of residents, *Research on Aging* 15, 4-414

Smallegan M(1985) There was nothing else to do :
Needs for care before nursing home admission.
The Gerontologist 25, 364-369.

Stephens SA, Christianson JB(1986) Informal care of
the elderly. Lexington, MA : Lexington Books.

Williams G(1990) The Experience of Housing in
Retirement. Eldershot Avebury.